

6월항쟁 한복판서 평화와 위로의 메시지

내일 금남로서 '광주프린지페스티벌'

퍼포먼스·발레·한국무용 공연
민주화, 5·18, 세월호 닛 위로
도심 곳곳 서커스·마임·버스킹

10일은 6월항쟁 30주년 기념일이다.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녹아있는 금남로를 뜨겁게 달군다.

프린지페스티벌이 10일 금남로 차 없는 거리에서 '일상 역전'(日常逆轉)을 주제로 오후 4시~밤 9시 펼쳐진다.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오후 4시 전일빌딩 앞에서 열리는 심홍재씨의 1인 퍼포먼스 '평화를 빕니다'(Peace be with you)이다. '뺨맞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주제로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수 많은 영령들에게 보내는 헌사이자 평화를 바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오후 6시 이정훈씨가 같은 장소에서 공연하는 '푸른오정' 퍼포먼스는 세월호를 내용으로 삼았다. 대구 동성로,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수차례 공연된 작품으로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위로한다.

5·18을 소재로 한 작품도 무대에 오른다. 나빌레라 발레단이 선사하는 '서석대의 바람소리'는 광주 한 여인이 5·18민주항쟁 과정에서 숨진 남편의 뺨가루를 서석대 위에서 날리며 자신의 한을 풀어내는 과정을 그린다. 또 남편을 잃은 아들에게 아버지의 송고한 정신을 가르치며 이어나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한국무용으로 풀어낸다

지난해 프린지페스티벌 작품상을 받은 히어로댄스스쿨은 1980년 5월 광주를 현대적인 라틴댄스로 각색한 '임을 위한 몸짓'을 공연한다.

또 거리 곳곳에서는 동상처럼 가만히 있는 '5·18시민군 상마임'과 고경명·김덕형·정중신 장군 분장을 하며 민주화운동 뿌리를 조명하는 '호남의병마임'이 진행된다.

마음껏 웃으면서도 인간을 성찰하는 거리예술퍼포먼스도 마련된다.

투게더팀이 선보이는 'Who is fastest?'(누가 가장 빠



지난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프린지페스티벌'에 참여한 시민들이 플래시몹을 펼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른가?)는 온몸에 각양각색 색칠을 한 채 진행되는 권투시합을 담았다. 웃긴 몸짓으로 연출하는 유쾌한 분위기와 함께 치열한 싸움을 보고 즐기는 우리들에게 인간에 내재된 폭력성을 묻는다.

'newsboy'는 30년 전, 50년 전, 100년 전, 400년 전 신문 '호외'(號外)를 뿌리고 다니는 소년이 주인공이다. 갑자기 소년은 총소리에 쓰러지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살펴본다.

'웃음꽃밭'은 웃음을 잃고 사는 현대인을 던지지 꼬집는다. '해피맨'이 얽은 미소를 떼쳐 등장하고 또 다른 '해피맨'이 와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크게 웃는다. 해피맨이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웃음소리가 더욱 커지며 '웃음꽃밭'이 만들어진다.

극단 '파랑새'는 오후 4시 전라동화 '금도끼 은도끼'를 손인형과 막대인형을 활용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심술통과 깨봉이'를 준비해 어린이 관람객을 맞는다.

서커스 공연도 눈길을 끈다. 공·볼·불은 곤봉·칼 등 다양한 사물로 저글링을 하는 '서커스맨 리쑈', 관객참여형 '베에로빈 코믹퍼포먼스', 마임·저글링·외발자전거·마술 등으로 구성된 '이상무서커스세상'이 흥겨움을 더한다.

5·18기록관 앞 무대에서는 오후 6시 '제26회 광주무용제-전국무용제 예선'이 열린다. 금남로에서는 광주 밴드팀들이 참여하는 버스킹 공연이 진행된다. 문의 062-601-491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서예페스티벌

10일~14일 비엔날레전시관

대한민국 캘리그래피대전도

(사)광주서예협회가 주최하고 광주시가 후원하는 제2회 광주서예페스티벌과 제8회 대한민국 캘리그래피대전이 10일~14일 광주 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문자추상전'(1관), '남도서예흐름전'(2관), 캘리그래피대전(3·4관)으로 나눠 작가 540명이 작품 540점을 선보인다.

전국 67명 작가가 참여하는 문자추상전은 획과 여백의미를 통한 서예의 새로운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자리다.

남도서예흐름전에서는 광주·전남 작가들이 참여해 남도 서예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올해 광주서예상(상금 300만원)은 금초 정광주씨, 청년작가상(100만원)은 정재석씨, 85세 대상 기로(耆老)서예상(100만원)은 고익배씨가 수상했다.

남도 서예사 코너에는 고(故)김효순 선생의 글을 조명하고 서예퍼포먼스, 서예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린다.

또 '제8회 대한민국 캘리그래피 대전'은 서예와 산업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는 행사다.

올해 대상(300만원)은 캘리그래피부문 나보현씨('눈꽃바람')가, 최우수상



정광주 작 '경현선사시'

(100만원)은 서예 강명순씨('下心')가 수상했다. 우수상(각 30만원)에는 김은옥 '꽃', 이명숙 '뺨맞 그늘에 앉아보렴', 이현정 '발아곡물', 전길현 '곡구춘산'이 선정됐다. /김용희기자 kimyh@

'명인명창명무전-하늘의 소리' 공연

12일 빛고을시민문화관...명인 11명 참여



'제2회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명인명창명무전-하늘의 소리'(총 연출감독 김광복)가 오는 12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사)아시아민족음악교류협회가 주최하고 광주시, 광주문화재단 등이 후원하는 이번 공연은 판소리부터 국악, 전통무용까지 한국 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다. 피리·태평소 김광복 감독을 비롯해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법 이수자 김청만, 중요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산조 김영자, 전국국악대전 대통령상 대금 원장현,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 박춘맹 등 명인 11명이 참여한다.

해금 김영재, 피리 김광복, 장고 김청

만 명인이 참여하는 민요연극 '피리해금의 어울림'을 시작으로 조흥동 명인이 한국무용 '진쇠춤'을 선보인다.

이어 박춘맹 명창은 판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북 김청만)을 들려주고 김영재 명인은 거문고명창 '발도유람가'(장고 김청만)를 연주한다. 유지숙(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전수조교사) 등은 서도소리 '수심가', '선소리 산타령'을 부른다.

피리·대금·아쟁·해금·거문고·가야금·장고·징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나위 합주에 이어 '이광수의 비나리와 김광복의 태평소 어울림'을 무대를 마무리한다. 문의 062-385-081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시대 창극 '호영의 희망 일기' 공연

전남도립국악단 11일 광주문예회관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유장영)의 시대 창극 '호영의 희망 일기'가 오는 11일 오후 4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광주와 전남도의 문화 예술 교류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립장극단이 전남도립국악단을 초청한 작품으로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정통 창극과 달리 '현재'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시대 창극 '호영의 일기'는 다문화 가정의 삶이 소재로 베트남 여인 호영이 아내로, 어머니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꿈 많은 베트남 여부의 딸 호영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친구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한다. 월남전 참전용사인 할아버지와 극성맞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무안의 농촌과 삼식과 결혼을 하게 된 호영은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삼아 누구보다 열심히 살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평탄치만은 않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눈물과 웃음으로 풀어낸 휴먼스토리로 월남전의 아픈 역사까지 아우르는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오월 광주를 소재로 한 '푸르른 날에'로 차범석 희곡상을 수상한 정경진씨가 대본을 쓰고 유장영 예술감독이 각색과 작곡, 연출을 맡았다. 작품 전반에 걸쳐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안무와 음악, 아름다운 영상과 조명 효과, 그리고 드라마틱한 무대 전개가 펼쳐진다.

티켓 예매는 광주문예회관 홈페이지(gjart.gwangju.go.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62-526-0363. /김미은기자 mekim@

내일 전국 고교생백일장

한국작가회의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최원식)는 오는 10일(오전 10시) 중앙대학교 '아트센터'에서 제23회 전국 고교생백일장을 개최한다.

올해 23회째를 맞는 전국 고교생백일장은 해마다 전국에서 1000여 명의 학생 및 지도교사가 참가해 글 솜씨를 뽐내는 국내 최고 행사다.

이번 참가대상은 전국 17세 이상 20세 미만 청소년(고교생 졸업자 제외)으로 제한하며 장르는 운문(해당 주제 1편)과 산문(해당 주제 1편) 두 분야다.

한편 이번 백일장에서는 방현서 소설가의 특강이 진행된다. 방 작가는 이번 강연에서 문학의 사회적 역할, 문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글쓰기의 경험적 토대를 들려줄 예정이다. 문의 02-313-1486.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테라스에서 즐기는 치맥한잔!!

치맥한잔

오늘은 치킨과 맥주가 만나는 날!
포장가능!!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